

Vol. 23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6. 06. 06.

■ 농정이슈

삼계탕 중국 수출 개시 등

■ 정책브리핑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

■ 연구지원

2015년 축산물생산비조사 등

■ 현장여론

농촌시장 노동시장 변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대외협력실

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삼계탕 중국 수출 개시

- [농식품부, 한중 삼계탕 관련 후속 검역·위생 절차에 대한 협의 마무리] 포장 표시 심의 등 중국 현지 통관에 필요한 절차 진행 중, 6월 중 첫 수출 개시 전망
 -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 지침서 마련하여 정부 검증 업무 표준화, 수출 작업장에 대한 검역·위생 관리 지도·감독 등 안정적 수출 지원 활동 지속 추진
 - (전망) 중국은 탕(湯)이라는 우리와 유사한 식문화 갖고 있어 삼계탕 최대 수입국 될 가능성 높아, 중국으로 1년간 300만 불 가량 수출 전망

※ '15년도 삼계탕 수출: 미국, 일본, 대만 등에 2,080톤 952만 불

자료: BBSEBNKBSMBCMBNSBSYTN국민일보글로벌이코노믹뉴스웨이뉴스토토뉴스팜뉴스·뉴스시스더팩트동양일보매일경제매디컬투데이미디어펜브릿지경제서울경제세계일보시사오늘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이데일리투데이조선일보주간무역충청매일충청일보폴리뉴스한국경제한국일보헤럴드경제(2016.05.29.) / 농촌여성신문뉴스토토대전일보미디어펜부산일보브레이크뉴스서울경제서울신문신아일보아시아경제이주경제의학신문이데일리전라일보전북일보중앙일보쿠기뉴스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환경일보헤럴드경제(2016.05.30.) / 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업신문(2016.05.31.) / 농민신문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2016.06.01.)

참고: 농식품부식약처 합동보도자료_「삼계탕 중국 수출 길 열려」(2016.05.27.)

농어민 대상 정보화교육 추진

- [미래부, 정보화에 소외된 농어업인 대상 무료 정보화교육 실시] '2015년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 다른 계층에 비해 농어민의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
 - ※ PC기반 정보화 수준: 결혼이민자(87.8%) > 저소득층(87.7%) > 장애인(86.2%) > 장노년층(77.4%) > 농어민(72.2%)
 - ※ 스마트 정보화 수준: 저소득층(74.5%) > 결혼이민자(73.1%) > 장애인(62.5%) > 장노년층(56.3%) > 농어민(55.2%)
- 연간 10,000명의 농어민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교육 및 스마트폰SNS 활용, UCC 동영상, 카페·블로그 제작 등 특화과정 개설 운영, 선정된 교육기관에 최대 연 9개월, 월 2개 과목, 과목당 30시간 교육 기준으로 전문강사와 교재 무료 지원
- 농번기나 출어기 등에 교육 참여 어려운 점 고려하여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계획

자료: EBN·뉴스1·디지털데일리·디지털타임스·아시아경제·아이뉴스24·아이티투데이·아주경제·이뉴스투데이·이데일리·전자신문·포커스뉴스(2016.05.29.) / 매일일보(2016.05.30.)

참고: 미래부 보도자료_「미래부, 농·어·민 대상 무료 정보화교육 본격 추진」(2016.05.27.)

㉔ 농정이슈

□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종료

- [농식품부,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선언, 5.31.]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운영했던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 (위기단계조정) 주의→관심 단계로 하향조정

- ※ 당초 지난 4.27일 구제역·AI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 위기단계를 「관심」으로 하향 조정 예정이었으나, 특별방역대책기간인 5월말까지 방역관리를 지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시점에 맞춰 조정

- (특별방역대책 추진 결과)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으나, 발생초기 강력한 초기대응과 특별방역조치 통한 전략적인 방역관리로 **추가확산 차단하고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

- ※ 구제역은 금년 1.11~3.29일까지 돼지에서 21건 발생(4.27일 이동제한 해제) / AI는 3.23~4.5일까지 2건 발생(4.27일 이동제한 해제)

- ※※ 발생초기부터 일시이동중지(3회), 권역별 반출제한 조치(3회),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을 허용,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사전에 확인하여 방역조치, GPS 등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축이동을 추적, 감시

-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후에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하여 **재발방지 위한 방역대책 지속 추진 예정**

자료: 일요신문(2016.05.30.) / KBS강원신문경북매일신문국제뉴스노컷뉴스뉴스토마토뉴스1.뉴스동양일보 신아일보아시아경제아시아뉴스통신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애견신문안동MBC연합뉴스이데일리중도일보 충청매일충청일보충청투데이한국농업신문한국일보헤럴드경제(2016.05.31.) / 강원도민일보국제뉴스뉴스1. 매일일보아주경제(2016.06.01.)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_「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평시 방역 전환」(2016.05.31.)

□ TRQ 쌀 4차 입찰 실시

- [농식품부, TRQ 쌀 4차 구매 입찰 실시 계획 발표] 6.7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통해 입찰 실시

- **밥쌀용 쌀 2.5만 톤, 가공용 쌀 4.1만 톤**으로 구분하여 **총 6.6만 톤 입찰 예정**

- ※ 금년 TRQ 쌀은 3차례 입찰 통해 가공용 쌀 112,300톤 낙찰

- (농식품부 입장) WTO 국제규범, 513% 관세율 검증협의 상황, 국내 수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밥쌀용 쌀 수입은 불가피**, 밥상용 쌀 수입되더라도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판매 시기와 물량 조절할 것**

㉔ 농정이슈

- (농업단체 입장) △전국농민회총연맹…쌀값 계속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쌀쌀용 쌀 수입 강행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불가피한 측면 있으나 **국내 쌀 시장 감안해 수입시기와 물량 조절 필요**

자료: KBS SBS 뉴스,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시아투데이, 이투데이, 한국경제TV, 헤럴드경제(2016.05.27.) / 강원도민일보(2016.05.28.) / 광주문화방송(2016.05.29.) / 농민신문(2016.05.30.) / 한국농어민신문(2016.05.31.)

참고: 농식품부 설명자료_「농식품부, TRQ 쌀 4차 입찰 실시」(2016.05.27.)

□ 1/4분기 국내총생산

- [한국은행, 1/4분기 국민소득 잠정치 발표, 6.2.]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기 대비 0.5% 성장**(속보치 대비 0.1%p 상향)
- 메르스 사태 충격 있던 작년 2분기(0.4%) 이후 최저 수준, 작년 3분기(1.2%) 제외하면 7분기째 0%대 성장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

	'14				'15p				'16p	
	1/4	2/4	3/4	4/4	1/4	2/4	3/4	4/4	1/4	
국내총생산 (GDP)	1.1 (3.9)	0.6 (3.5)	0.7 (3.4)	0.3 (2.7)	0.8 (2.4)	0.4 (2.2)	1.2 (2.8)	0.7 (3.1)	0.5	(2.8)
농 립 어 업	-1.6	-0.4	1.6	1.7	3.7	-11.0	4.7	-2.6	6.5	(-2.4)
제 조 업	1.8	1.0	-0.7	-0.2	0.4	0.9	0.4	0.7	-0.2	(1.9)
건 설 업	1.9	0.1	-0.2	-2.1	1.8	-0.1	5.5	0.7	4.8	(11.1)
서 비 스 업	0.9	0.4	1.2	0.7	0.7	0.2	1.1	0.7	0.5	(2.5)

- (농림어업) **전기 대비 6.5%↑**, △농업…양돈, 가금 등 축산업 중심으로 6.7% 증가, △어업…수산양식업 호조에 힘입어 6.4% 증가

자료: EBN, KBS, MBN, NBS, 통신SBS, ktS, 교통방송, YTN, 글로벌이코노믹, 뉴스웨이, 뉴스핌, 뉴스1, 뉴시스, 더팩트, 디지털타임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미디어펜, 브릿지경제, 서울경제, 세계일보, 서울파이낸스, 아시아경제, 아시아투데이, 아이뉴스24, 이투데이, 에너지경제, 연합뉴스, 연합인포맥스, 울산종합일보, 이데일리, 투데이, 조선일보, 주간무역, 중소기업신문, 천지일보, 파이낸셜뉴스, 포커스뉴스, 한국경제, 한국금융신문, 한국일보, 헤럴드경제(2016.06.02.)

참고: 한국은행 보도자료_「2016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2016.06.02.)

㉔ 농정이슈

□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확정

- [정부, 제2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5.30.]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CPS) 등 논의·확정
 - (사업규모) 1,295개 사업, 2조 7,286억 원, '16년 확정 예산(2조 4,394억) 대비 2,892억 원 증액, 양자협력 2조 2,557억 (유상 9,172, 무상 13,385), 다자협력 4,729억
 - (개발협력구상) 지난해 발표된 개발협력구상*에 ODA 사업 집중, 총 19개 기관에서 327개 사업, 7,635억 원 규모로 추진, 전체 ODA 규모의 약 28%
 - ※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 활용 교육혁신,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 (SDGs) '17년은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 본격 추진되는 첫해, 우리나라는 산업화빈곤퇴치·교육물과 위생·보건 분야 집중 지원 예정
 - (신규사업 발굴) △한류와 결합한 관광, 디자인 등 문화 분야 신규 ODA 적극 추진,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적 이슈와 관련된 ODA 분야 사업 발굴·확대, △이란, 니카라과 등 대상으로 신규 사업 추진하여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등
- 자료: KTV국민방송SBS건설경제신문매일경제머니투데이서울경제아이뉴스24연합뉴스이데일라조선비즈충청투데이파이낸셜뉴스(2016.05.30.) / 국토일보(2016.05.31.)
- 참고: 국무조정실 보도자료_「내년도 공적개발원조 1,295개 사업 총 2조 7,286억원 국개위 의결」(2016.05.30.)

□ 쌀값 관련 동향

- [농민신문, “쌀값 어떡하나…” 보도, 6.1.] 정부의 추가격리에도 불구하고 산지 재고로 5년내 쌀값 최저치
 - 여름철 쌀값이 전년도 수확기보다 높게 형성되는 단경기 특수는 커녕 벌써 올해 수확기 쌀값 걱정해야 할 상황
 - 5월 평균 산지 쌀값 14만 3,892원/80kg으로 4월 대비 345원 하락, 산지 쌀값이 14만 3,000원대로 떨어진 것은 2011.2월 이후 처음, 걱정 수준 이상의 재고 탕
 - 단경기 쌀값과 재고량이 수확기 햅쌀 가격 형성에 직접적 영향 미칠 수도
- 자료: 농민신문(2016.06.01.)

정책브리핑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05.26.)

□ 주요내용

- [농식품부, 농식품 분야 일자리 약 13,800개 창출 계획 추진] 농번기 인력 mismatch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위해 '17년까지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 집중

1. 고용 중개를 통한 영농작업반 운영

- 농촌의 빈자리, 도시 유희인력의 일자리로 탈바꿈
 - '14년부터 지자체·농협 등을 통해 인력 중개 실시하였으나, 단순 중개 기능 수행하여 **지속적 일자리 확보 미흡 등의 문제점 노출**
 - (추진내용) 일손부족 심한 시군 중심으로 '거점 인력중개센터' 설치, 해당 시군 또는 인접 도시의 인력중개기관과 협업하여 **도시 유희인력이 참여하는 영농작업반*** 구성
 - ※ 일반적으로 10~40명으로 그룹화하여 농가·농업법인으로부터 농작업 위탁을 받아 작업 수행 (농한기를 제외한 연중 지속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
 - 농가를 대상으로 구인 수요 미리 파악하고 **기 구성된 영농작업반에 지속적으로 농작업 제공할 계획**
 - (기대효과) 25개 시군에서 **약 900명 참여** 목표로 추진, 숙련도 상승, 농번기 노임 안정 및 지속적인 작업 참여에 따른 일자리 제공 효과 등 기대

2. 창업·취업 자금 지원

- 청년·귀농인에 대한 창업 자금 지원 및 농업법인·농촌서비스 분야의 인력 채용 지원을 통한 취창업 직접 지원
 - (추진내용)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 추진(200명), 귀농인 대상 농지 등 영농 창업을 위한 자금 지급, 농업법인이 농고·농대 졸업생 또는 석사급 이상의 전문인력 채용 시 지원 등

㉔ 정책브리핑

3. 교육실습 지원

- 창업취업 단계 이전의 실질적인 경험 획득을 위한 **현장 실습 중심의 다양한 교육 지원**
 - (예비 귀농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3개소) 및 귀농 교육·상담 추진, 우수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영농기술 습득 지원
 - (농대생) 영농창업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사전 경험 지원 위하여 ‘**장기현장실습**’ 과정 운영, **뉴질랜드 훈련비자 통한 인턴쉽**
 - (외식·식품) 외식 창업 희망팀에게 매장 경영 기회 제공하기 위한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대학생 대상 1개월 이상 ‘**국내외 외식·식품기업 인턴쉽**’ 지원
 - (전문가 육성) 6차산업 및 농어촌 개발 컨설턴트, 농어촌 퍼실리테이터, 해외 농업기술개발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 과정 운영

4. 6차산업·신규 유망산업 육성

- 6차산업 및 유망산업 육성 통해 '17년까지 신규 일자리 7.6천 개 창출
 - (6차산업)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등을 통한 **가공 창업 활성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위해 창업초기 시제품 생산 지원하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44개소까지 확대**,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구축** 통해 지역 특산물 활용한 농식품 가공 창업 지원
 - (반려동물) 수의사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동물 간호사(수의 테크니션)** 도입 및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법률 제개정 등) 마련**
 - ※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사료·미용·보험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방안’ 마련
 - (말산업) **승마 인프라 구축 지원**, **승마 관련 자격제도 활성화**, ‘말 테마 창조 마을’(이천) 조성, 농어촌형 승마시설 및 승용마 전문 생산농장 지정 확대, 말 조련사 승마지도사재활승마지도사말 관리사 육성과정 운영
 - ※ '16년 농어촌형 승마시설 17개소(現 124개소), 승용마 전문 생산농장 15개소(現 68) 지원
 - (곤충산업) **곤충자원을 활용한 창업 확대 유도**, 곤충을 활용한 기능성 애완사료·식품원료 및 대량생산기술 등에 대한 지속적 R&D 투자('16~'20, 150억 원 규모) 등

자료: 통계청(2016.05.27.)

조사개요

- [통계청, 2015년 축산물생산비조사결과 발표, 5.27.] 양축농가의 경영개선 및 축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
 - (조사기간) '15.01.01.~12.31. (1년간)
 - (조사내용) △가축사육구입 및 축산물(주부산물) 판매수입에 관한 사항, △가축 사육에 투입되는 사료비·약품비·수도광열비 등 경영비 등
 - (조사대상 및 표본농가수) 7개 축종* 1,400가구
 - ※ 한우번식우, 한우비육우, 육우, 젖소, 비육돈, 산란계, 육계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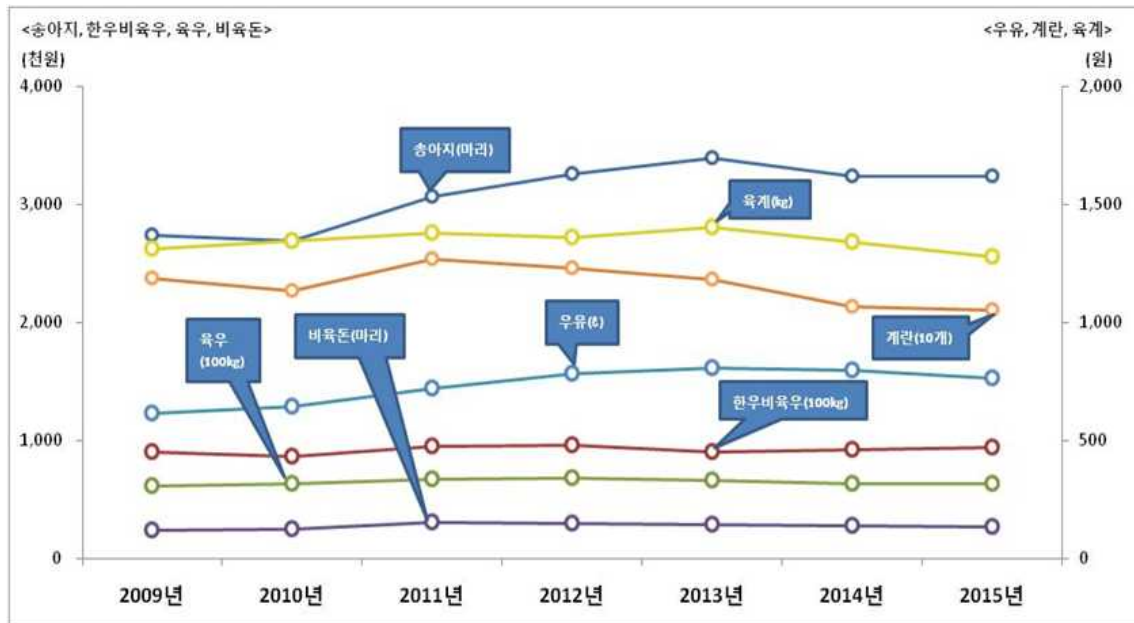
- [축산물생산비] 사료가격 하락에 따른 사료비 감소 등으로 한우비육우를 제외한 모든 축종에서 전년 대비 감소
 - (감소) 육계(-4.7%), 우유(-4.2), 비육돈(-2.3), 계란(-1.2), 육우(-0.4)
 - (증가) 한우비육우(2.0%)

축산물 생산비 현황

	'15(A)		'14(B)		전 년 대 비			
					증감(A-B)		증감률(%)	
	경영비	생산비	경영비	생산비	경영비	생산비	경영비	생산비
송아지 (천 원/마리)	2,096	3,236	2,103	3,240	-7	-4	-0.3	-0.1
한우비육우(천 원/100kg)	808	943	788	925	20	18	2.5	2.0
육 우 (천 원/100kg)	530	633	527	635	3	-2	0.5	-0.4
우 유 (원/ℓ)	639	763	667	796	-28	-34	-4.2	-4.2
비육돈 (천 원/100kg)	258	270	265	276	-7	-6	-2.8	-2.3
계 란 (원/10개)	997	1,051	1,006	1,064	-9	-13	-0.9	-1.2
육 계 (원/kg)	1,214	1,278	1,278	1,340	-64	-63	-5.0	-4.7

연구지원

최근 7년간 생산비 추이



- [축산물 순수익] 생산비 감소와 축산물 생산량, 판매가격 상승 등에 기인하여 **소 및 돼지 축종 전년 대비 증가**, 닭 축종은 축산물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
- (젓소) 마리당 순수익 281만 원('14년 242), 원유 생산량 2.8% ↑
 - (돼지) 마리당 순수익 9.7만 원('14년 8.4), 탕박기준 돼지 경락가격 4.2% ↑
 - (산란계) 마리당 순수익 2,363원('14년 4,146) 계란 산지가격 9.1% 하락

축산물 수익성 현황

	'15			'14			순수익 전년 대비	
	총수입	소 득	순수익	총수입	소 득	순수익	증감	증감률
한우번식우 (천 원/마리)	2,162	628	-192	1,801	241	-585	394	-
한우비육우 (천 원/마리)	7,183	1,296	316	6,414	688	-293	608	-
육 우 (천 원/마리)	4,374	536	-207	3,515	-310	-1,092	885	-
젓 소 (천 원/마리)	10,057	3,944	2,809	9,730	3,580	2,422	386	15.9
비육돈 (천 원/마리)	404	111	97	398	97	84	13	15.0
산란계 (원/마리)	32,812	3,896	2,363	35,693	5,818	4,147	-1,784	-43.0
육 계 (원/마리)	1,910	159	67	2,058	203	112	-45	-40.5

연구지원

규모별 생산비 및 경영비

송아지 (천 원/마리)	규 모	10마리 미만	10~29	30~49	50마리 이상	평 균
	경 영 비	2,067	2,101	2,127	2,079	2,096
	생 산 비	4,393	3,796	3,234	2,953	3,236
한우비육우 (천 원/100kg)	규 모	20마리 미만	20~49	50~99	100마리 이상	평 균
	경 영 비	787	793	817	818	808
	생 산 비	1,039	968	935	902	943
육 우 (천 원/100kg)	규 모	20마리 미만	20~49	50~99	100마리 이상	평 균
	경 영 비	526	532	506	539	530
	생 산 비	738	662	601	595	633
우 유 (원/100ℓ)	규 모	40마리 미만	40~59	60~79	80마리 이상	평 균
	경 영 비	67,322	62,395	59,901	65,371	63,919
	생 산 비	87,355	79,014	74,408	75,257	76,256
비육돈 (천 원/100kg)	규 모	1,000마리 미만	1,000~1,999	2,000~2,999	3,000마리 이상	평 균
	경 영 비	285	268	253	251	258
	생 산 비	312	283	265	260	270
계 란 (원/100개)	규 모	20,000마리 미만	20,000~ 29,999	30,000~39,999	40,000마리 이상	평 균
	경 영 비	11,016	9,819	10,208	9,806	9,965
	생 산 비	13,064	10,964	10,836	10,211	10,511
육 계 (원/10kg)	규 모	30,000마리 미만	30,000~39,999	40,000~49,999	50,000마리 이상	평 균
	경 영 비	13,452	12,691	12,045	11,984	12,138
	생 산 비	14,348	13,319	12,701	12,598	12,777

규모별 수익성

한우 번식우 (천 원/마리)	규 모	10마리 미만	10~29	30~49	50마리 이상	평 균
	총수입	2,443	2,120	2,171	2,141	2,162
	소 득	863	606	650	604	628
	순수익	-864	-592	-125	-33	-192
한우 비육우 (천 원/마리)	규 모	20마리 미만	20~49	50~99	100마리 이상	평 균
	총수입	7,049	7,167	7,291	7,183	7,183
	소 득	1,483	1,404	1,298	1,169	1,296
	순수익	-278	139	439	560	316
육 우 (천 원/마리)	규 모	20마리 미만	20~49	50~99	100마리 이상	평 균
	총수입	4,430	4,267	4,723	4,266	4,374
	소 득	641	435	959	383	536
	순수익	-883	-495	256	-21	-207
젖 소 (천 원/마리)	규 모	40마리 미만	40~59	60~79	80마리 이상	평 균
	총수입	8,920	9,781	10,274	10,222	10,057
	소 득	3,060	4,055	4,390	3,910	3,944
	순수익	1,383	2,587	3,026	2,991	2,809
비육돈 (천 원/마리)	규 모	1,000마리 미만	1,000~1,999	2,000~2,999	3,000마리 이상	평 균
	총수입	408	406	415	400	404
	소 득	84	101	127	113	111
	순수익	53	83	114	104	97
산란계 (원/마리)	규 모	20,000마리 미만	20,000~ 29,999	30,000~39,999	40,000마리 이상	평 균
	총수입	31,770	31,707	31,106	33,077	32,812
	소 득	1,690	3,456	2,152	4,207	3,896
	순수익	-3,730	230	424	3,051	2,363
육 계 (원/10마리)	규 모	30,000마리 미만	30,000~39,999	40,000~49,999	50,000마리 이상	평 균
	총수입	22,495	21,412	19,893	18,277	19,100
	소 득	2,133	2,088	2,754	1,223	1,585
	순수익	779	1,134	1,824	351	666

2016년 5월 소비자 물가동향

자료 : 통계청(2016.06.01.)

전반적 동향

- [소비자물가지수] 110.66(2010년=100), 전월 대비 변동 없음

※ 전년 동월 대비 0.8% ↑

연도별 5월 및 월별 소비자물가 동향

(2010=100, %)

	연도별 5월 동향			최근 월별 동향							
	2014	2015	2016	'15.10.	11	12	'16. 1.	2	3	4	5
지 수	109.24	109.82	110.66	110.05	109.92	110.21	110.26	110.76	110.46	110.61	110.66
전 월 비	0.2	0.3	0.0	0.0	-0.1	0.3	0.0	0.5	-0.3	0.1	0.0
전년동월비	1.7	0.5	0.8	0.9	1.0	1.3	0.8	1.3	1.0	1.0	0.8
전년동기비	1.3	0.5	1.0	0.6	0.7	0.7	0.8	1.1	1.0	1.0	1.0

-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 112.85, 전월 대비 0.2% 상승

※ 전년 동월 대비 1.6% ↑

-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 112.01, 전월 대비 0.2% 상승

※ 전년 동월 대비 1.9% ↑

- [생활물가지수] 107.72, 전월 대비 0.1% 하락

※ 전년 동월 대비 0.1% ↑

- (식품) 114.94, 전월 대비 0.6% ↓ (전년 동월 대비 1.3% ↑)

- (식품이외) 104.74, 전월 대비 0.2% ↑ (전년 동월 대비 0.5% ↓)

- [신선식품지수] 108.89, 전월 대비 3.0% 하락

※ 전년 동월 대비 3.5% ↑

- (신선채소) 98.71, 전월 대비 8.4% ↓ (전년 동월 대비 6.3% ↑)

- (신선과실) 105.98, 전월 대비 0.8% ↓ (전년 동월 대비 5.1% ↓)

- (신선어개) 120.56, 전월 대비 0.8% ↑ (전년 동월 대비 5.6% ↑)

- (기타신선식품*) 153.72, 전월 대비 7.6% ↑ (전년 동월 대비 50.6% ↑)

※ 마늘, 생강

연구지원

농축수산물 물가동향

○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113.89, 전월 대비 1.2% 하락

※ 전년 동월 대비 1.3% ↑

- (농산물) 109.13, 전월 대비 3.3% ↓ (전년 동월 대비 0.2% ↑)

- (축산물) 116.93, 전월 대비 1.3% ↑ (전년 동월 대비 1.5% ↑)

- (수산물) 121.87, 전월 대비 0.8% ↑ (전년 동월 대비 4.5% ↑)

2016년 5월 농축수산물 물가동향

(단위 : 2010=100, %, %p)

	품목수	가중치	지수	등락률		기여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 총 지 수 >	481	1000.0	110.66	0.0	0.8	0.05	0.76
- 상 품	327	453.2	109.45	-0.2	-1.1	-0.07	-0.48
· 농축수산물	71	77.6	113.89	-1.2	1.3	-0.09	0.10
(농산물)	51	44.1	109.13	-3.3	0.2	-0.14	0.01
(축산물)	6	22.2	116.93	1.3	1.5	0.03	0.04
(수산물)	14	11.3	121.87	0.8	4.5	0.01	0.05

2016년 5월 주요 농축산물 등락품목

(단위 : %)

구 분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상승품목	돼지고기(4.8), 양배추(28.7), 수박(10.0), 마늘(8.1), 계(6.5), 무(5.3), 생화(12.2)	쇠고기(국산:19.0), 마늘(57.2), 배추(43.4), 무(59.3), 계(36.9), 갈치(12.8), 양배추(44.2)
하락품목	양파(-27.7), 토마토(-25.1), 참외(-19.1), 배추(-7.5), 쌀(-2.9), 피망(-23.3), 호박(-22.9)	쌀(-9.2), 돼지고기(-6.0), 달걀(-14.1), 참외(-17.7), 딸기(-17.0), 닭고기(-10.4)

현장여론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자료: KREI리포터를 대상으로 창의정보실 자체 조사

※ 본 자료는 연구원이 전국 시·군에 농업경영인 1명씩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KREI리포터가 보내온 농촌 현장 여론과 정책제언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취지로 가감 없이 요지만 정리하였으며, 연구와 정책에 활용되길 바랍니다. (현장의 소리 전문은 KREI리포터 사랑방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사 개요

- 수집기간: 2016. 5. 1. ~ 5. 31.(총 13건)
- 수집대상: KREI리포터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수집

□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 농촌은 현재 노동력의 고령화와 상주인구 부족 등으로 노동의 질이 낮은 실정임. 논 작업에는 기계화가 이루어졌으나 밭농사는 여전히 미약함. **농촌 노동력을 대체할 농업 기계화 정책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일자리 창출, 인력은행 도입 등의 제도 운영이 필요함.** <배병열, 전남 광주>
- 부산 기장지역은 농어촌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 농사철이 끝나도 어업을 돕는 손길이 필요해 연중 일손이 필요함. 도시민이 한 번씩 일손 돕기를 오지만 그 횟수가 많지 않음. <최시훈, 부산 기장>
- 구미지역 또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력시장에서 조달하는 인력을 활용하고 있음. **일사일촌 결연을 맺어 농번기에는 도시민의 일손 돕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기 바람.** <정경희, 경북 구미>
- 영월지역은 농기계 작업비율이 평야지역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음. 20~30km 떨어진 제천이나 심지어 원주의 인력사무실까지 부탁해 인력을 충당하고 있음.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일하며 6만 5천원에서 7만원의 인건비를 주고 있음. <유영조, 강원 영월>

㉔ KRE리포터 현장여론

- 농촌의 노동시장은 단순노동, 중간노동, 전문노동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편입. 단순 노동은 주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로 활용하고 있으며 농산물 선별 등 전문노동은 주변 농가에서 본인 일이 끝나면 품앗이 형태로 도와주는 형태로 이어가고 있음.<고정식, 제주 제주>
- 자체 인력으로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인건비 상승과 고령화로 농촌의 일손부족이 심각한 실정임.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이전보다는 고용불안을 해결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일당, 식대, 새참, 교통비 등을 지불하는 비용을 따지면 제자리걸음인 농산물 가격과는 반대로 해마다 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장기적인 대책이라 볼 수 없을 것임.** 이러한 환경 탓에 오히려 근로자가 값이 되고 고용주가 눈치 보는 일이 되는 것이 농촌 노동시장의 현실임.<김갑순, 경북 영양>
- 도시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농촌에서는 농가에서 사람을 찾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임. 인력이 부족하고 생산비가 늘어날수록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과일과 채소 등의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음. 사설 인력소개소는 일방적인 조건을 내놓는 등 더러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농협에서 농촌인력증개소를 만들어 인력을 적기에 공급해주는 안정적 인력 공급체계를 마련해주기 바람.**<임충빈, 경기 안성>
- 농촌지역 노동시장은 속된 말로 머슴부터 품앗이, 품삯 일꾼,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 근로자의 70%이상을 차지할 만큼 다양한 변화가 있었음. 숙련도나 언어소통, 식사 문제 등이 때론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국내 근로자에 비해 비교적 임금이 낮은 편이며 젊고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강점이 있어 **외국인 근로자 활용이 단기적인 인력수급 대책이 되고 있음. 그러나 농산물 가격과 비교했을 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농가경제에는 여전히 부담이 되는 현실임.**<최영호, 충남 부여>
- **논농사는 대부분 기계화가 이루어졌으나 시설농업을 비롯한 밭농사는 기계화가 미흡해 인력수급이 더욱 큰 문제임.** 외국인 근로자가 있어 농사가 유지라도 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농업을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할 것이란 우려가 있음. 상추 농가에서는 하루 인건비로 남자 10만원, 여자 7만원을 지불하는데, 상추를 종일 따와야 스무 상자, 상추 한 상자 가격은 평균 5천원을 넘지 않으니 단순히 계산해보아도 인건비 충당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음. 과거에는 농촌 노동시장에 품앗이가 큰 부분을 차지했으나 현재는 그 단어조차 생소해졌고 앞으로는 더욱 인력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이길숙, 경기 안성>

㉮ KRE리porter 현장여론

- 20년 전만 해도 농촌에서는 단순노동만이 요구되고 농한기가 있었으나, 최근 다품종 작물재배로 농한기 개념이 없어지고 있으며 노동기술을 요하는 작업이 늘었음. 농사는 노력에 비해 안정적인 소득창출이 어려워 젊은이들이 기피하면서 노동력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농기계조차 손쉽게 구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곳도 많은 실정임.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의 변화에 다각적으로 대처하고 질 높은 노동력이 농촌에 영주할 수 있도록 농촌의 자녀 교육, 환경 개선, 농산물의 가공 및 판매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소득 안정 등의 대안 마련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임.**<임영애, 제주 제주>
-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대부분 고령화와 절대적인 노동력 부족이라는 공통적인 상황을 맞고 있음. 농업은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기계화 및 자동화의 한계가 있어 여전히 사람의 일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음. 때문에 적시에 인력 공급이 어려워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농업 노동시장의 특성상 계절적 수요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수확철에 노동력 수요가 집중되고 다른 시기에는 가족노동으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임.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상주가 불필요해 그 대안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계절 입국을 허가하고 있으나 절차상으로 까다롭고 번거로워 활용이 희박하다고 봄. **1~3개월 단위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활용 절차를 개선해 적시적소에 실질적인 활용이 되기를 바람.**<이봉용, 충남 공주>
- 농사일을 돕던 어르신들은 한분 두 분 건강상의 이유나 사망 등으로 노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고 수확 철에 일할 사람이 없어 밭을 동동 구르는 일이 많음. 농촌은 일손이 부족해 어디라도 일자리로 넘쳐나는데 정작 도시민은 농촌에 관심 갖지 않고 취업난에 시달린다고 하니 아이러니한 현실이 아쉽게 생각됨.<송인숙, 강원 강릉>
- 도시민은 일자리가 없다고 야단인 반면 농촌은 일손부족으로 제때 농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우성이 큼. 때문에 **관광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로 교육시켜 활용하고 있으나 고용 취지와 맞지 않게 활용도가 떨어져 아쉬움이 많음.**<박종임, 충북 괴산>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대외협력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나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